



경희대학교

2022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체육계)

[온라인]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 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4. 답안지에 찍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문제별로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5. 인문·체육계 문제지는 총 3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2014년 5월 27일 파키스탄의 제2 도시인 편잡주의 라호르시 고등법원 앞에서 파르자나 파르빈(25)이 아버지와 오빠에 의해 돌에 맞아 살해당했다. 가족의 허락 없이 무함마드 이크발(45)과 결혼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이 이유였다. 파르빈은 임신 3개월인 상태였다. 파르빈은 그의 가족들이 이크발을 납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에 자신의 뜻으로 결혼했다는 증언을 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법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은 파르빈에게 벽돌을 던지고 방망이를 휘둘렀다. 딸을 숨지게 한 아버지는 경찰에 잡혀가면서도 “딸이 허락 없이 결혼을 해 가족 모두를 모욕했기에 살해했다.”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은 불법이지만 파키스탄 인권단체 아우랏재단에 따르면 매년 이렇게 숨진 여성이 약 1,000명이나 된다. 대부분의 명예살인이 정부의 행정력이 잘 미치지 않는 시골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도시 중심가에 있는 법원 앞에서 대낮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파키스탄 내에서도 충격을 주고 있다.

[나]

“남자들은 저 편리한 대로 신의니 뭐니 잘도 갖다 대더군요. 우리가 혼인한 것이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어찌 그 약속을 여자 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저를 돌보지 않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차라리 전 팔자를 고쳤으면 합니다.”

“사대부집 아녀자가 어찌 입에 담아선 안 될 험한 소리를 하오? 당신이 인륜을 저버리고 예의, 염치도 모르는 행동을 하리라곤 생각할 수 없소.”

“인륜? 예의? 염치? 그게 무엇이지요? 하루 종일 무릎이 시도록 웅크리고 앉아 샴바느질을 하는 게 인륜입니까? 남편이야 무슨 짓을 하든 서속이라도 꾸어다가 조석을 봉양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술친구 대접까지 해야 그게 예의라는 말입니까? 하루에 열두 번도 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염치를 아는 겁니까? 아무리 굶주려도 꺾소리 못하고 눈이 짓무르도록 바느질을 하고 그러다 아무 쓸모없는 노파가 되어 죽는 게 바로 인륜이라는 거지요?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짓 않겠습니다. 분명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 행복하게 살며 번성하라고 내셨지, 어찌 누구는 밤낮 서럽게 기다리고 굶주리다 자식도 없이 죽어 버리라고 하셨겠는가 말이에요?”

[다]

근대윤리학은 도덕적 이성의 핵심적 특징은 불편부당성이라고 설정한다. 그리고 모든 합리적 행위 주체에게 똑같은 보편적인 관점을 각 행위 주체가 채택할 때에만 이기주의를 피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불편부당성의 이상은 이렇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적 관점’을 추구하면서 나온 결과물이다.

도덕 이론가나 합리적 행위 주체는 어떻게 도덕적 관점에 도달할까? 도덕적 이성의 성찰 대상인 상황의 개별 특수성을 남김없이 사상(捨象)하는 방식을 통해서이다. 불편부당하게 추론하는 자는 상황의 개별 특수성에 거리를 두고 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즉, 이성은 도덕적 추론이 일어나는 상황의 구성 요소인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험들과 역사들을 사상시켜 버린다. 불편부당한 추론을 수행하는 자는 또한 그 자신이나 타인이 상황에 대해 가지게 되는 감정, 욕구, 이해관계, 가치지향 및 다짐을 사상시켜 버린다. 끝으로, 불편부당한 추론을 수행하는 자는 보편적인 추론을 수행한다.

불편부당한 이성의 목표는 구체적인 행위 상황의 외부에서 판단하는 도덕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주체들이나 주체들 집합의 관점, 속성, 성격과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관점’이 그러한 도덕적 관점이다.

< 뒷면에 계속 >

[라]

내부 고발의 영어 표현 ‘whistle blowing’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위법 행위를 경계하고 시민의 위험을 경고하던 데서 유래한 말이다. 내부 고발은 조직이나 집단의 전·현직 구성원이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 발생한 불법, 부정부패, 비리,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사람이나 감독·수사 기관 등에 알리는 행위다. 내부 고발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많은 고민과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동료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하는 데다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한 선택으로 인해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는 감사원 감사 비리, 군 부정 선거, 보안사 민간인 사찰 등 정권과 관련된 내부 고발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인천 신공항 부실 시공, 적십자사 혈액 관리 부실, 자동차 리콜 지연, 불량 밀가루 유통, 사학재단 비리 등 안전, 건강, 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내부 고발이 확대되었다. 이런 일들은 소속 집단 내부의 이해관계보다 시민으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이뤄진 내부 고발 102건을 추적한 결과 진상 규명에 기여하거나 조직 또는 제도 변화를 이끈 경우는 62건(전체의 60.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부재자 영외투표 개정과 일명 ‘도가니법’ 제정처럼 제도나 시스템 개선을 성공시킨 내부 고발은 청렴사회의 디딤돌 역할을 해 왔다.

[마]

무릇 신민(臣民)이 된 자가 충성과 의리를 숭상하면 나라가 흥하고 백성이 편안해진다. 반면 불충하고 불의하면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은 멸망한다. 우리 2,000만 동포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때를 만나 어느 한 사람 결심하지도 않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단지 황상(皇上)이 지극히 근심하시는 것만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한 채 멸망으로 치달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근래의 역사를 한 번 살펴보면, 나라가 무너져서 멸망한 이집트·베트남·폴란드 등의 민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단지 자기 몸과 자기 집만 알았을 뿐 군주와 국가를 생각하지 않아 결국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다. 지금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충성과 의리를 분발할 때가 아닌가? 지금 나라의 빚이 1,300만 원이며, 이는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관계된 일이다. 이를 갚으면 나라를 보존하게 되고 못 갚으면 나라를 잃고 만다. 형세가 여기에 이르렀으나 현재 국고로는 보상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삼천리 강토는 장차 우리나라가 아니게 될 것이다.

일반 국민도 이 국채 보상에 대한 의무에 대해 모른 채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다. 모두가 보상에 참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2,000만의 백성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돈을 각 사람마다 20전씩 낸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만약 부족하다면 1원, 10원, 100원, 1000원 등 따로 기부를 받으면 될 것이다.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이니만큼 잠시 결심만 하면 된다. 부족한 우리들이 이렇게 발기하여 경계하는 글을 계속 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대한의 군자들이 모두 보고 말과 글로 서로 경고하여 모든 사람이 이 내용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로는 황상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강토를 지킬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

[바]

지적재산권은 특허, 저작권, 상표로 보호받는 발명품 등 창작물을 의미한다. 지적재산 보호는 무단 복제를 방지하고 원작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혁신 기업에 단기적인 생산 독점권을 부여해 기업의 개발 비용을 충당하고 투자를 장려한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이 심각한 백신 부족 문제에 직면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제조사들이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해제하여, 제품생산 기술 등 노하우를 일종의 공공재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수해야 팬데믹의 극복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신 특허권 면제를 반대하는 입장 또한 존재한다. 생명공학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코로나19 백신을 기록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생산하는 동기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약업체에 종사하는 반대론자들은 특허 면제로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쿠에니 국제제약협회연맹 사무총장은 BBC 투데이 프로그램에서 “(특허 면제가 아니라) 공급체인에서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지금 부유한 국가들이 초기 백신 물량을 가난한 국가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실망스러운 현실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독일 정부는 6일 성명에서 백신 특허권 면제 제안에 대해 반대하며, “백신 생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건 생산능력 및 높은 품질기준 때문이지 특허 때문이 아니”라며 제약사들은 이미 협력사와 손잡고 백신 제조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포기라 아니라 제약사들이 특허료를 받고 기술 이전을 통해 라이선스 생산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

서양 근대의 산물인 자유주의는 삶을 옥죄던 공동체의 가시적 비가시적 강제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켰고, 이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성장에 이바지했다. 그런데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확산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자 자유주의의 기초인 개인의 권리가 비사회적 개인주의를 낳아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공동체의 덕성을 중시한 공동체주의 사상이 등장했다.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적 유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상호적 돌봄의 의무, 공동체의 목적에 기여하는 참여 등을 공공선으로 간주하며, 사회적 존재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선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이

보기에 자유주의는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약화시키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참여와 공적 의무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 권리의 선행적 근원적 우선성을 강조하지만, 개인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자신처럼 자유와 권리를 지닌 타인들과 함께 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존재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라도 공공선과 공동체적 발전을 추구해야만 한다.

[문제 I]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상황에 대해 평가하시오. [801자 이상 ~ 900자 이하: 배점 50점]

[문제 II]

[라], [마], [바], [사]에서 입장이 유사한 두 집단으로 짝지어 그 중 한 입장을 요약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801자 이상 ~ 900자 이하: 배점 50점]